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45 회색과 성격

회색 좋아하는 남성, 명쾌한 여성이 이상적

●색채와 성격

회색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은 현실 생활에서 개성적 표현을 억제하므로 수동적이며, 기운이 없어 스트레스가 쌓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 한 번 목표를 정하면 꿰어오를 듯한 정열로 회색에서 탈피하여 여러 가지 색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으며, 휴가 기간에 자신을 회복시켜 새로운 웃음과 감성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잠시 회색을 잊어버리고, 낙관적인 태양과 바다색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



지원하거나 암전하게 웃을 입을 남성이 이상적이다.

회색은 검은색과 하얀색의 혼색으로 타협의 색이며,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 없이 평화를 추구하는 색이다. 회색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느 한쪽이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양자택일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어느 정도의 곤란과 앞일에 대한 불안을 떨쳐 버릴 수가 없으니 숨이 막히는 상태에 있다.

특히 이 색을 선택한 사람은 일하러 가는 것이 좋은지 가지 않는 것이 좋은지 망설이고 있는 농가의 노부부, 두 회사를 동시에 합격하여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젊은 여성, 친구에게 꾸어준 돈의 독촉과 우정의 파괴라는 갈등으로 마음이 상하고 있는 젊은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샐러리맨들이다.

회색을 좋아하는 남성은 운순하게 복종하며, 명쾌한 여성이 이상적이다. 회색을 좋아하는 여성은 당신을

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참여의식이 부족하다.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단성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하며, 활기가 부족한 정신 상태를 나타낸다. 그들은 자립심과 패기가 부족하며, 유혹이나 암시에 빠지기 쉽다. 이 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향적 또는 폐쇄적이며, 간혹 '잔혹한' 인물도 나타났었다.

정상인들이 회색을 선호하는 경우는 드물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선호한다. 회색을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망이나 공포의 감정에 빠져 있음을 의미한다.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단점으로는 마음이 많이 침체 되고,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며, 자기 안의 주거 공간을 찾으려고 한다. 증상으로는 우울증이 나타나며, 주의할 점으로는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목적 없이 혼자서 여행을 자주 가거나 세상 살기 싫다고 녹음기처럼 말하는 사람들이다. 해결방안으로는 우울증 또는 우울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은 밝은 장소(꽃이 많은 곳, 밝은색으로 장식된 곳)로 놀러 또는 여행 가는 것이 좋고, 자신의 옷 색깔도 밝은색이며 더욱더 좋다. 특히 갱년기에 접어든 남녀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색이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교복 못입는 광주 중·고 신입생들



취재수첩 김혜인 취재2부 기자 hyein.kim@jinilbo.com

어른들의 불공정행위는 결국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3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업체들때문에 광주 학생들은 매년 1인당 6만원 이상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해왔으며 업체 대부분이 입찰 제한을 받은 현재에는 교복을 입고싶어도 입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만큼 학생들을 더욱 답답하게만 만들고 있다.

광주 학생들은 1학기 내내 교복도 입어 보지 못한 채 학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벌어진 교복값 담합사태의 영향이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광주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 교복 입찰 289건을 업체들이 담합해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광주시교육청은 업체 38곳에 5~6개월 입찰참여 제한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광주 지역 교복업체 대다수가 입찰 제한을 받으면서 학교 측에서는 교복을 구할 길이 막막해졌다. 지난해 기준 교복을 착용하는 광주 중·고등학교 144곳 중 통상 동·하복을 구매하는 시기인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나라장터에 교복 입찰 공고를 낸 광주지역 학교는 27곳에 그쳤다. 나머지 학교는 1학기가 지난 뒤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광주 남구 A중학교는 "원래 11월부터 학생 교복 구매를 위해 입찰 공고를 올리고 동·하복을 동시에 구매해왔지만 작년 담합사태가 벌어지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하반기로 미뤘다"며 "현재 학생들은 자율 복장으로 등교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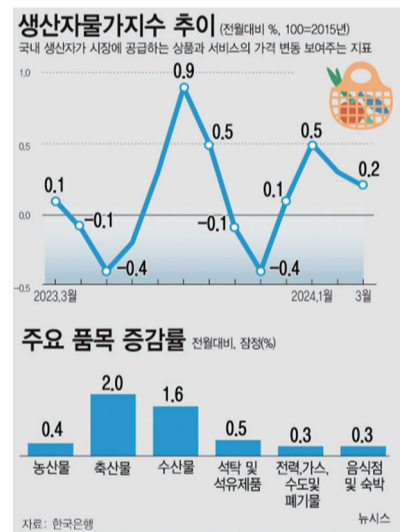
과거와 달리 교복자율화 시대에 교복이 없다고해서 학습과 교육에 큰 지장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복이 주는 상징성, 특히 교복이 주는 소속감과 연대감으로 설레는 1학기를 꿈꿨을 아이들의 실망이 컸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교복담합 사태는 오늘날의 일이 아니다. 개인이 자율로 구매하던 고가의 교복이 부담된다는 여론이 일자 2015년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도입해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됐다. 도입 10년째지만 입찰 과정에서 업체가 담합을 벌이는 상황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 물가 안정의 일환으로 '교복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사후 대책만으로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당국은 교복 관련 제도나 대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른들의 때문에 교복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